

봇들신문



| 발행 | 문화숨 | 편집장 | 임남영 | 취재 및 편집 | 봇들6단지 꿈너비기자단 | 블로그 | dreamwider.wordpress.com

| 후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꿈너비도서관

봇들 6단지 행복 마을 축제가 열리다



봇들 6단지 행복마을축제가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 단지 앞 어린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을을 짙게 물들 이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의 열기로 축제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봇들 6단지 축제는 벼룩시장, 체험부스, 놀이마당 등 어른,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됨은 물론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른 곳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없는 부산어묵, 만두, 김치전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꿈너비 중창단과 봇들마을 자랑인 줌마세시봉의 공연에 이어진 장기 자랑에서는 2013년 강타한 '빠빠빠' 춤과 아이들의 노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축제의 마무리로 대동놀이와 오색 길쌈을 엮으며 마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판교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마을과는 달리 신도시가 건설되고 여곳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쟁간소음, 공동생활의 문제점을 안고 살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 부족으로 불편함을 해결하고 못하고 참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의 대표 단체들이 결성되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서로 다른 이해 관계로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축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면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팔거나 나누고, 자신의 재능을 보이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울려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아이들은 또래와 자연스레 어울립니다.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야기로 공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축제 중반까지 내린 비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벼룩시장에는 천막이 마련되지 못해 관계자 분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관심 부족 해결이 최대 숙제로 남았습니다. 2013년 봇들 6단지 행복 마을 축제는 여러 성과와 아쉬움을 남기며 다음회를 기약했습니다.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고 의미있는 마을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어야 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심성은 기자)

“축제에서 줄넘기를 했는데 줄길이가 너무 길어서 걸렸다. 참 어렵다. 다음에는 좋은 상품을 타고 싶다. (석유리)”

“한글날, 식목일 등 기념되는 날에 맞춰 주민들이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찾기처럼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았으면 합니다. (성시은)”

“난 축제에서 브로치를 사고, 음식도 먹고 놀았다. 그런데 추첨에 당첨되지 못해서 아쉬웠다. 만들기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씩 하나씩 꼬아지는 길쌈놀이는 정말 신기했다. (임남영)”

“우리가 만든 6단지 아파트 모형이 인기가 많아 기분이 좋았다. 축제에 늦게 참여해서 아쉬웠고 다음번에도 또 하면 좋겠다. (임수현)”

“나도 가고 싶었지만 이번 축제에는 참석을 못해 아쉽다. 다음에도 축제를 한다면 꼭 가고 싶다. (허예은)”

“2번째 맞은 축제. 한해 한해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하는 봇들마을 6단지. 많은 분들의 봉사 속에서 무사히 치뤄진 축제로 인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김효순)”



happy
car sharing
service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행복카
저렴한 요금으로 함께 타는 행복한 자동차



‘행복봇들마을에서 놀자’-2

지난호에 이어 <생활문화공동체>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8월말부터 12월까지 매수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 ‘가족예술교실’은 행복봇들마을의 특색에 맞게 기획되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이 되었다.

가족예술프로그램은 총 5가지 수업으로 진행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수업으로 생각하고 기획되었던 건데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은 있네요.

수업은 총 15강으로 1~3강은 정윤경 선생님이 음악극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 4~5강은 요리 수업으로 방태옥, 박준미 선생님이 6~8강은 이해진 선생님이 만들기 수업을 9강~12강은 정은아 선생님이 촉감놀이 & 미술 수업 마지막으로 13강~15강은 지영숙 선생님이 ‘나무야 놀자’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가족예술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족 예술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가치는 바로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엄마들이란 점입니다.

물론 기존에 수업을 해본 엄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올해 초 마을 아카데미를 하면서 열심히 하신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이 수업입니다. 조금은 어설픈(?) 정돈되지 않은 방식의 수업이여도 아이들은 늘 봐왔던 엄마들과 함께 하니 좋고 엄마들은 내 아이와 함께 즐기며 수업 하는 것이 참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저 또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였어요.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 역시 그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봇들마을 화팅!!

(박선영 / 문화숨 코디네이터)



나에게 ‘가족예술프로그램’이란?

<최우정, 윤승주 가족>

직장맘이었던 저에게 이 수업은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미술, 요리, 음악극, 만들기, 나무공예, 놀이 등 알차고 보람된 프로그램과 열정적인 마을강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아이와 함께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동생의 출산으로 엄마를 빼앗겨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을 첫째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



수업이 즐겁다고 늘 말했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 아이도 저도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미소맘>

삼남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수요일 저녁 7시 수업! 매주마다 알찬 수업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태옥, 한우주, 한우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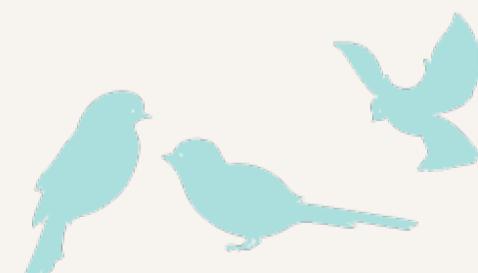
마을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생소했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직접 요리수업의 강사가 되어 수업도 해 보고, 애들이랑 같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박준미-은찬, 솔찬 맘>

어느샌가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바쁘다는 핑계에 두 아이와 함께 맘껏 보낸 시간이 언제인지... 이번 가족예술교실 수업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아이들과 맘껏 즐기며 체험하는 멋진 시간이였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체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숨 관계자 분들, 수고하신 강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란?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법 제44조 2항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이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둑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봇들6단지 2기

입주자 대표회의 의 구성과 역할

아파트는 우리나라 거주 형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삼평동은 주거형태의 100%가 아파트(봇들마을 1단지~9단지)이다. 예전의 부락, 동네 중심의 공동체 구조도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그만큼 하는 일도 많아졌고 입주자 대표 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1,300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 봇들 6단지는 주택의 소유가 자가나 전세가 아닌 임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가 아닌 거주로 점차 바뀌면서 임대주택 보급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임대주택의 정책과 수준이 한 나라의 복지를 대표하고 있다. ‘신도시 내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설치’라는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아파트 단지 대표회의의 주요 업무가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 있다면 봇들6단지의 관리주체나 대표들은 임대단지의 특수성에 맞춰 일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책을 시행하는 LH와 연계해 주민의 복지와 올바른 공동체 생활의 확립, 타 단지와의 화합 등 물적 가치가 아닌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로 봇들6단지 1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가 마무리 되고 2기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언론에 관리주체와 대표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결국 몇몇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대표회의가 될 것이고, 우리단지의 영향력은 그만큼 적어지고 복지정책도 후퇴할 것이다. 살기 좋은 봇들6단지, 행복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대표회의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대표회의를 뽑는 주민들의 책임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기 입주자 대표 회의

안녕하세요~

이번동대표선거에서 재선된 603동대표 김희찬입니다.

22일 저녁9시에 열린대표회의에서

임대위2기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많이부족한사람이지만 이에 인사를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은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기 동대표 및 임원 >

회 장 : 김희찬 (603동 대표)

부회장 : 안세진 (606동 대표)

감 사 : 조병철 (605동 대표)

총 무 : 강영선 (613동 대표)

장상국(601동), 김희찬(602동), 김종인(604동)

선재봉(607동), 최종관(609동), 김영신(610동),

손재일(612동)



cafe.naver.com/bottle6love

봇들6단지 카페인 '봇들6단지 사랑방' 탐방

봇들6단지 꿈너비 도서관은 독서 공간일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입니다. 꿈너비 도서관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라면 온라인 카페인 '봇들6단지 사랑방'은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꿈너비 도서관과 봇들6단지 사랑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봇들6단지 사랑방 카페는 우리 단지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봇들6단지 주민이라면 카페 가입만으로 각종 정보를 얻고 아파트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봇들6단지 사랑방 카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나누거나 대여 받고 벼룩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 믿을 수 있고 편리함 등 여러 장점이 있고 또한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받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것,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할 것, 필요한 물건을 대여 했을 때는 깨끗이 사용 후 잘 돌려줄 것, 물건을 판매할 때는 카페를 통해 판매 가능한 수준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자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방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카페지기 지영숙(010-8603-0828)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00~12:30 / 천연비누 및 방향제, 양초수업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2:00 / 종이접기 수업

유아 및 초등반은 화요일 오후

꿈너비 그림하기

서평 - '헝거게임'을 읽고.

매년 24명의 소년,소녀 조공인들이 펼치는 살육잔치. 단 한 명의 생존자에 환호하는 우리.

헝거게임은 수잔 콜린스의 암울한 SF 3부작 소설이다. '판엠'이라는 미래 단일 국가는 12개 구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소녀를 수도인 '캐피톨'로 불러와 '헝거게임'이라고 불리는, 단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는 게임을 벌인다. 주인공 캣니스 에버딘은 동생을 대신해서 조공인이 되길 지원한다. 탄광이 있는 12번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부유한 구역에서 훈련까지 받아온 조공인들이 있는 헝거게임에 참여한다는 건 곧 시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캣니스가 함께 조공인으로 뽑힌 피타와 함께 헝거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기차에 오른 순간부터 캣니스 앞에는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구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족함과 화려함. 온통 검은 석탄재로 뒤덮힌 12번 구역 출신의 갯니스에게는 캐피톨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다. 그래서인지 나이 어린 조공인들은 훈련일정을 소화해 내며,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오히려 즐기는 듯이 "우승은 내 것"임을 외친다.

헝거게임의 시스템은 이렇게 구역의 어른들에게는 공포를, 구역의 아이들에게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목숨 걸고 매력을 뽐내는 나이인 십대들에게 성공하면 평생의 부귀를, 실패하면 당장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헝거게임은 진폭이 증폭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일까?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숙 훈련 과정과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뽑는 게임의 진행과정에서 전국을 휩쓰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방송을 통해 스폰서를 얻기 위해 같은 구역 출신인 피타와 러브라인-우리 결혼했어요 같은-을 만들어 내고, 구역의 상징인 불로 드레스를 맞춰 입은 덕에 '불타는 소녀'라는 별명을 얻은 캣니스는 자신이 혁명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도 못한 채 게임장에 떨궈진다

평소 활로 사냥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던 캣니스는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는 23명의 다른 참가자들과의 잔인한 게임을 풀어나갈까?

도서관에 있으니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P.S) 개인적으로 SF 소설 중에서는 '은하영웅전설'을 최고의 소설로 꼽는다. 최근 완역본이 출간되어 애호가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우리 지성이에게는 보다 더 일찍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꿈너비도서관 비치되어 꼭 '빌려'보라고 하고 싶다.